3월 셋째 주

가정예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찬양해요 찬송가 213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고린도전서 6:12–20

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
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
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
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
라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
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 이해하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오해하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한 것은 맞지만, 잘못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역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음란에 관한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몸'은 현세에 존재하는 우리의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 전체와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몸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더 생각해보기

❶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15절), 성령의 전(19절)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을까요(17절)?

❷ 우리의 몸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1) 몸은 ☐☐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를 위해 있다(13절).

(2)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을 돌리라(20절).

❸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에서 유익하지 않은 행동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

❹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 자유를 나의 몸을 만족시키고 누리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이 몸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